

교육부, 한·중·일 예비교사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 개최

- 7월 25일(토) 서울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한·중·일 예비교사 등 50여 명 참가하여 이야기(스토리텔링)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공유
- 한·중·일 3국 예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향상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동반 성장 기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김종훈, 이하 아태교육원)과 함께 7월 25일(토) 아태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 한·중·일 예비교사 이야기(스토리텔링)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한다.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가 회원국 간 세계시민교육 확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이번 발표회는 한·중·일 예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3개국 5개 팀(한국 전주교대·광주교대·성신여대, 중국 북경사범대, 일본 테이쿄대)으로 구성된 예비교사 및 현직 지도(멘토)교수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각국의 그림책이나 소설 같은 문학작품을 활용해 만든 세계시민교육 수업 계획안을 발표한다. 이 수업들은 학생들이 평화와 함께 살아가는 법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설계되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전래동화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림책을 읽고 직접 역할놀이를 해보는 등 최신 기술과 참여형 활동을 결합한 새로운 수업 방법들이 공유될 계획이다. 수업안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한·중·일 교수진이 발표 내용을 검토하고 조언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아태교육원은 지난 2021년부터 이야기(스토리텔링)가 가진 공감의 힘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고자, 관련 학회 등과 공동으로 본 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모아 '스토리로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초등편·중등편, '24.~'25.)'을 발간하는 등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세계 평화, 문화 다양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현재 유네스코 내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 교육 의제이다.

이난영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발표회는 한·중·일 예비교사들이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함께 탐구하고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이 동북아 3국의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가 간 교육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한·중·일 예비교사 이야기(스토리텔링)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 개요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담당자
담당 부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책임자
		담당자

붙임 **한·중·일 예비교사 이야기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 개요**

□ **개요**

- (목적) 이야기(스토리텔링) 기반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개발을 통해 한·중·일 예비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동북아 교육자 간 교류·연대 증진
- (일시·장소) 2026. 7. 25.(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서울)
- (참가자) 한·중·일 예비교사 및 관계자 등 총 50여 명
※ 한국 3개 팀, 중국 1개 팀, 일본 1개 팀 및 한·일국제이해교육학회 관계자 등
- (주요내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연구내용 발표 및 토론, 문화교류 등

□ **수업연구 발표회 일정[안]**

일정	내용	담당	
09:00 ~ 12:00	문화교류 및 네트워킹	참가자 전원	
14:00 ~ 14:30	개회식	교육부, 아태교육원	
14:30 ~ 17:30	이야기(스토리텔링)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발표 및 토론	한국1팀	성신여자대학
		일본팀*	테이쿄대학
		한국2팀**	전주교육대학
		중국팀	북경사범대학
		한국3팀	광주교육대학
17:30 ~ 18:00	총평	후지와라 타카야키 교수(도시샤여대) 강영민 교수(북경사범대)	

* (주요 발표 1) 생성형 AI로 전래동화를 각색한 그림책을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안

** (주요 발표 2) 그림책 '작',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낮선 나라에서 온 아이'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 수업안